

매마른 남아프리카공화국, 물없이 요리하기(Waterless Cooking)

남아공사무소

케이프타운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

-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전체 9개 주 가운데 3개 주에서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교육지책으로 웨스턴 케이프주(州)의 주도(州都)인 케이프타운에서는 주민 한사람당 하루 물사용량을 50ℓ로 제한하고 있다.
- 물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 남아공은 물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데이제로(Day Zero)*'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물을 받기 위해 줄서 있는
케이프타운 시민들

출처 : www.bloomberg.com

* **데이제로(Day Zero)** :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의 도시 케이프타운은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데이제로(Day Zero)'를 향한 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상태다. 데이제로는 도시 전역의 급수를 전면 차단하는 것이다.

새로운 요리 트렌드, Waterless Cooking

- 물부족 사태가 야기한 물절약 노력의 일환으로 남아공에서는 물없이 요리하는 이른바 Waterless Cooking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했다. 트렌드의 중심에는 광고회사 140BBDDO와 Radio Smile 90.4FM이 합작하여 펼치고 있는 'H2ZERO' 캠페인이 있다.

| H2ZERO 캠페인 |



출처 : www.140bbdo.com

| Waterless cooking 요리 |



출처 : www.facebook.com/H2zero

- 이 캠페인을 통해 이들은 매주 수요일을 Waterless Wednesday로 정하고, 지역 유명 셰프들을 섭외해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요리하는 도전 프로그램을 기획해 방송 중이다. 셰프들은 요리과정에서 물절약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물 없이도 요리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공유한다. 라디오와 SNS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그 파급력은 놀라울 정도다.

각 가정에서도 물없는 요리에 도전

- 밀키트(Meal Kit)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아공기업 UCOOK이 캠페인 주체들과 협업관계를 맺고, 각 가정에서 물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리방법을 공유하고 신메뉴를 개발해 판매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 물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캠페인을 통해, 물없이 요리하는 일은 이제 일반대중에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절약을 위해 끓이는 요리보다 찜요리를 선호하게 되고, 특정요리의 물은 재사용하는 등 자신만의 waterless 요리비법을 블로그에 공유하기도 한다.
- 남아공의 심각한 가뭄과 물부족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거나 아예 물없이도 요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꾸준히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물이 필요없는 간편식품과 RTC(READY TO COOK)제품의 인기도 확대될 전망이다.
- 즉석밥이나 면제품, 냉동만두 등의 국내 RTC제품을 남아공 현지에 특화된 상품으로 개발하거나 물이 많이 나오는 양배추, 양파, 당근 등의 채소가 원료로 들어간 한식요리, 예를 들어 카레·불고기·잡채 등의 조리법을 공유한다면 남아공 소비자들의 식단을 점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밀키트(Meal Kit) 딜리버리 서비스 : 요리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손질해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

출처 : <http://www.140bbdo.com/h2zero>
<https://www.facebook.com>
<http://news.chosun.com>